

되감기 노트

AI에게 요약은 맡겨도, 믿음까지 맡기지는 않는다.

긴 수업을 AI로 요약하고, 중요한 내용은 실제 수업 문장까지 연결해 다시 확인하는 복습 방법입니다.

왜 바꿨나

AI 요약은 빨랐지만, “교수님이 정말 이렇게 말했나?”를 확인하려면 2만 자가 넘는 긴 원문을 다시 뒤져야 했습니다.

이전

요약만 먼저 읽음
→ 의심되는 내용이 생기면 긴 원문을 처음부터 다시 찾음

바꾼 뒤

핵심 요약 ②
→ 같은 ②에 연결된 실제 수업 문장을 검색해 바로 확인

실제 수업 예시

핵심 요약 ②

설계에서는 구조적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같은 ②에 연결한 실제 수업 문장

“구조적인 부분들은 충분히 이제 검토를 하고 진행을 하시는 게 나중에 활용을 하실 때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 수업 녹음을 글로 옮긴 내용에서 학생 이름 등 개인 식별 정보가 없는 짧은 부분만 사용했습니다.

읽을 땐 요약, 확인할 땐 되감기.

써보며 네 번 고쳤습니다.

처음부터 잘 된 사례로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쓰면서 생긴 오류를 확인하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면 사용 방법을 바꿨습니다.

01 원문에 없는 시간 표시가 생김

바꾼 방법

시간으로 찾는 방식을 없애고, 원문에 실제로 있는 문장으로만 돌아가도록 바꿈

02 요약 옆 번호와 원문 번호가 어긋남

바꾼 방법

요약에 쓴 번호는 아래 원문 목록에도 반드시 같은 번호가 있도록 수정

03 인용문에 ‘...’가 들어가 검색이 안 됨

바꾼 방법

생략하거나 고치지 않고, 원문에 이어서 있는 짧은 문장만 그대로 사용

04 핵심 요약이 10개까지 늘어남

바꾼 방법

처음 읽는 부분은 지금 필요한 3~5개만 남기도록 제한

핵심은 “AI가 더 정확해졌다”가 아닙니다.

AI가 틀릴 수 있다는 전제에서, 중요한 내용은 사용자가 실제 수업 문장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실제 약 53분짜리 건축 수업에 써봤습니다.

수업 녹음을 글로 옮긴 내용은 22,033자(약 2만 2천 자)였습니다. 실제 사용 중 확인한 것과, 아직 말할 수 없는 것을 분리했습니다.

사용한 AI

ChatGPT로 정리 규칙을 만들고, 타임리에서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되감기 노트’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확인한 것

- 수업이 끝난 뒤 이어진 학생 질문은 요약에서 제외됨
- 그 실행에서 요약 번호가 모두 원문 문장과 연결됨
- 원문에 없던 시간 표시가 새로 만들어지지 않음
- 긴 수업 내용을 한 번에 입력해 결과를 얻음

말하지 않는 것

- 100% 정확하다
- 오류가 전혀 없다
- 학습효과가 몇 % 높아졌다
- 복습 시간이 몇 % 줄었다
- 마지막 수정 뒤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다른 사람도 같은 방식으로 따라 할 수 있습니다.

1

수업 녹음을 글로 옮겨 AI에 붙여넣습니다.

2

“핵심은 3~5개만, 각 항목에 번호를 붙여 줘”라고 요청합니다.

3

“같은 번호로 원문에 실제 있는 짧은 문장을 그대로 남겨 줘”라고 요청합니다.

4

애매한 내용은 단정하지 말고 “확인 필요”로 남긴 뒤, 필요한 번호의 원문을 검색합니다.

공개 자료에는 수업 원문 전체를 넣지 않습니다.

학생 발언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제외하고, 설명에 필요한 짧은 예시만 사용합니다.